파란색 글씨 부분은 길이를 위해 추가했던 부분이라 1순위로 빠져도 좋은 부분입니다.

1. 안녕하세요, 현정씨.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한국무역협회 디지털 마스터 1기 졸업생 김현정입니다. 지리학과와 글로벌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연남동에서 2년 동안 공간 대여 카페를 운영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 30개국을 여행하며 세상의 크기에 감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점포 사업을 하며 오프라인의 한계점과 온라인의 중요성을 깨닫고 디지털 마스터 과정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2. 디지털마스터 과정 1기를 수료하셨다고 들었는데, 디지털마스터 과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디지털 마스터 과정은 자바 기반의 웹 컴포넌트 아키텍처 및 빅데이터 분석 과정을 배워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 포메이션(DX)을 위한 ICT 전문가가 목표인 과정입니다. 약 6개월 동안 840시간의 강도 높은 교육을 받는 과정입니다. 수업이 끝나고 다른 수강생들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까지 하면 디지털 고등학교를 6개월 만에 졸업을 한 기분입니다. 한국무역협회에서 주관하는 교육과정이라는 점에서 다른 과정보다 신뢰도가 높아 디지털 마스터 과정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을 코엑스에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멋있어서 선택한 것도 있습니다 :)

3. 선발 전형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디지털 마스터 수강생이 되기 위해서는 서류심사와 한 번의 면접을 통과해야 하는데요. 저는 ICT 전공 또는 외국어 우수자 우대에 제가 해당되지 않아 걱정이 되어서 솔직하게 제가 왜 이 과정을 수강해야 하는지를 집중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과정을 빠르게 따라가지 못할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수료할 의지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배우게 될 커리큘럼에 있는 개념들과 언어들이 어떤 것인지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고 면접에 들어가서 제가 해당 과정에 가지고 있는 관심을 표현했습니다.

4. 수료하면서 힘들었던 점이나 보람을 느낀 부분, 특이한 경험 등 수료 소감을 듣고 싶어요.

두 번의 프로젝트 발표 경연 대회에서 발표를 맡아서 했는데요.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시간에 기술 관련 질문이 들어왔을 때 프로그래밍 언어와 알고리즘을 통해 제가 개발한 부분을 설명드릴 때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전에는 알아들을 수 없던 말들을 제가 직접 하고 있다는 사실에 뿌듯하고 벌써 개발자가 된 것 같아서 설레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기회로 아침에 무역협회 홍보실에서 근로활동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른 1교시에 모두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힘들어하던 다른 학생들 보다 저는 근무를 하며 하루를 일찍 시작하여 더욱 생기 넘치게 수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근로 출근을 하며 하늘을 찍었는데 깜깜한 하늘을 보며 시작하던 12월의 하늘이 점점 갈수록 밝아져 5월의 푸른 아침이 되어 과정을 끝마치며 저의 개발자 인생의 시작을 응원받은 것 같아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졸업식 날 홍보실 직원분들이 꽃다발과 함께 축하를 해주러 오셨었는데요. 6개월의 제 노력을 참 잘했다고 말해주신 것 같아서 큰 감동이었습니다.

5. 디지털마스터 과정이 현정씨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었나요?

문과 계열의 졸업생으로서 개발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고 실천하려 했지만 관련 언어와 배워야 하는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아서 어떤 것을 공부해야 할지 막막했었는데요. 해당 과정은 짧은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언어를 접해보고 실제로 프로젝트에 적용을 해볼 수 있어서 전체적인 흐름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과정의 커리큘럼만을 보고 너무 많은 것을 다루어 얕게 배우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문을 품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과정을 수료하고 나니 전혀 얕지 않았고 프로젝트를 하며 깊고 현실적으로 적용을 해서 결과를 만들어 내는 과정이 되어주었습니다. 제 개발자 인생의 인트로(시작점, 주춧돌)로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고 두 개의 프로젝트 포트폴리오로 커리어의 시작을 열어주었습니다.

6. 디지털마스터 과정을 어떤 분에게 추천해드리고 싶나요?

개발자가 되고 싶은 비전공자 또는 커리어를 넓히고 싶은 분에게 추천드립니다.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면서 대부분의 분야에서 디지털 작업 능력이 필요로 하는데 그중 가장 필요한 것은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과정은 웹 프로그램을 생성해 보면서 데이터의 구조를 한번 배우고 2차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데이터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역량들은 어느 업무에서도 활용되어 본인의 가능성을 넓혀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7. 향후 커리어플랜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스프링’이라는 툴을 활용하여 웹의 전반적인 개요를 만드는 1차 프로젝트를 하면서 자바를 기반으로 한 웹 백엔드 개발자가 되기로 다짐을 했는데요. 그 시작으로 한국무역협회 아카데미에서 소개해 주신 회사에 입사해 경력을 쌓을 예정입니다. 배운 것을 까먹기 전에 바로 현업에서 일을 해보려 합니다 :) 그리고 저의 최종 목표는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개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개발자가 필요한 시대라면, 새로운 기술을 배운 지금이 제가 세계를 무대로 나아가기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 외국에서 대학원 진학도 하여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